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노 은 하¹ · 송 주 은²

아주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Grounded Theory Approach for Becoming a Mother of Chinese Immigrant Women in Korea

Eun Ha Roh¹ · Ju-Eun Song²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¹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²

Purpose: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 of becoming a mother after child-birth of Chinese im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Ten Chinese immigrant women were recruited from multi-cultural center in the metropolitan area.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from July 2015 to May in 2016. Interview was conducted until the data were theoretically saturate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the data collection, an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Corbin and Strauss' grounded theory method.

Results: In total, 36 concepts were produced through the analysis, and similar concepts were combined to derive 16 categories.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 categories, the core category is analysed as 'becoming culture integrating mothers'. The attainment process from this procedural approach are described as cultural intimidated stage, cultural conflicting stage, cultural cooperating stage, cultural integrating stage. There are three types of 'becoming cultural integrating mothers', integrating type, conflicting type, and intimidated type.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o develop the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including cultural sensitive education and consultation program for helping becoming a mother in each type of the Chinese immigrant women in Korea. In addition, nurse or nursing student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the cultural sensitivity is also needed.

Key Words: immigrants, mothers, chinese, grounded theor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어머니 됨은 모성의 중요한 발달 단계이고, 비의례적인 가계의 문제이면서, 부모 세대의 전통적 지식이 가장 강하게 전달되는 사회적 현상이다. 또한 Meleis 등(2000)은 어머니 됨은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에서 어머니로 재정립하고 삶의 역할에 대한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 발달기적 전환 위기이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 현상이라고 했다.

*본 논문은 제 1저자 노은하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임.
 교신저자: 송주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전화번호: 031-219-7018, 팩스번호: 031-219-7020
 E-mail: songje@ajou.ac.kr
 투고일자: 2017년 3월 31일, 심사일자: 2017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5월 20일

특별히 이주여성은 어머니 됨의 전환 위기와 이민자로서의 문화적응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취약 계층으로, 모성으로의 전환과 이민으로 인한 전환의 과정에서 이주여성은 자국민 여성과 달리, 모국 문화에서 습득한 암묵적 지식과 함께 이민국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와 실천 내용을 인지해야 하며, 두 문화적(bicultural) 행위에 동시에 노출되고 이의 영향을 받게 된다(Bornstein & Bohr, 2011). 따라서 이주여성으로서의 어머니 됨은, 자국민 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과는 다른 맥락에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한국이주여성은 주로 결혼이민을 통해 199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대 초반에는 인구의 1% 미만이었으나 2008년에는 8.6%로 증가하였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또한 초기 한국이주여성은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국제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하였으나(Park & Rhee, 2012), 최근 통계를 보면 점차 취업과 유학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4), 2007년 보고에는 한국이주여성의 48%가 농촌 총각과의 결혼으로 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으나(Kim et al., 2007), 2015년에는 63.1%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14) 변화하는 이민여성의 특징을 고려한 어머니 됨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주 외국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탐색한 질적연구는 주로 다양한 국적 출신의 이민여성을 참여자로 모두 포함하여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분석하였는데(Kim et al., 2012; Kim, 2013; Kim & Kim, 2014), 그러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다문화 결혼이민 여성들의 어머니로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다양한 국적의 여성을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의 모국의 문화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 됨은 문화적 속성이 강한 현상으로서(Song et al., 2016) 출산 후 여성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기대하는 역할이나 돌봄을 받거나 주는 방식, 그리고 가족에 대한 가치와 역할의 기대 등이 모국 문화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주 외국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국 문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 내에서 어머니 됨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 출신 여성은 국내이주 외국인 여성의 54.8%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 출신 여성의 90% 이상이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반면, 중국 출신 여성은 국제결혼이 목적인 경

우가 35%에 불과하다. 2009년 이후 중국여성의 한국이주 목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이 79.1%에서 35.0%로 감소한 반면, 국내 대학으로의 유학은 2.1%에서 5.9%로, 국내 기업으로의 취업 이주 6.4%에서 35.6%로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중국 이주여성은 다른 나라 출신 여성에 비하여 한국이주 목적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특징을 가진 대상군으로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중국의 성장에 따라 중국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이주 중국여성의 문화적응과 어머니 됨이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드러날 개연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달라진 중국이민여성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들이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회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고, 당면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의 근거이론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조건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에 대한 실체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 문제는 “한국이주 중국여성이 어머니가 되어가는 적응 과정은 어떠한가?”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rbin과 Strauss (2008)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이주 중국여성이 어머니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실재의 본질을 분석하고 실체이론을 도출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국내이주 중국여성이 지리적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 중국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참여자를 목적 표출한 후(Corbin et al., 2008), 이로 부터 같은 조건의 참여자를 소개 받는 눈

덩이 표출(Coyne, 1997)을 실시하였다. 질적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수는 자료가 포화할 때까지 표집하는 이론적 표집으로, 본 연구에서는 10명의 연구참여자의 면담 자료를 비교 분석했을 때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은, 1) 출생 국적이 중국인 여성, 2) 한국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여성 또는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 이민여성, 3) 첫 아이의 연령이 생후 100일에서 36개월 이하인 여성 그리고 4)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생후 100일에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으로 국한한 이유는, 어머니 역할에 대한 정체감이 획득되고 통합되는 민감한 시점이 생후 1년으로 설명되긴 하나(Mercer, 2004), 생후 1년 이내의 어머니로만 대상자를 국한할 경우, 어머니 됨의 전 과정을 성찰적으로 보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되어, 자녀의 12개월까지의 시간을 보다 성찰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서, 회상을 통한 보고가 가능한 시기라고 사료되는, 첫 자녀가 36개월 미만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100일 이내의 어린 자녀를 둔 산모는 어머니 됨 초기이어서 과정을 탐색하기 어려워 제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0명으로, 조선족 5명과 한족 5명이며, 모두 중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으며 한국에는 결혼(3명), 학업(2명), 경제활동(5명) 등의 이유로 이주하게 되었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2015년 7월부터 자료가 모두 포화된 2016년 5월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을 위해 미리 참여자와 두세 차례 전화로 친숙함을 갖고 첫 대면에서 어머니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후 연구 핵심 질문인 “한국이주 중국여성으로서 어머니가 되어가는 경험과 과정은 어떠하십니까?”를 포함한 구체적인 보조 질문들을 면담 상황과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제시하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면담 노트에 기록하였다. 면담 소요 시간은 한 시간 정도였으며, 초기 면담 이후 두 번째 면담을 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한 필담 혹은 전화 통화 등으로 자료 수집을 보충하였다. 면담이 끝난 즉시 녹음된 내용은 연구자가 반복적

으로 청취하며 필사하였다. 필사된 자료가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는 녹음 자료, 면담 노트 및 면담 도중 작성한 메모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면담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추후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중국이민여성이 한국에서의 어머니 되어가는 경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정립할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필사된 면담 내용을 Corbin 등(200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과 범주를 도출한 후 질적자료 수집경험과 자료 분석을 통한 다수의 연구논문 출판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3인과 어머니 됨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2인, 그리고 국문학 교수 1인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검토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각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패러다임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야기 윤곽을 기술하고 이야기 속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범주를 결정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의 근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는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온 모든 결과를 통합하여 상황모형으로 제시 하였다.

5. 연구 결과의 타당성 확보

본 연구자는 Guba와 Lincoln (1992)이 질적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신뢰성, 적용가능성, 감사가능성, 확인가능성에 근거하여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신뢰성을 위해 자료 분석 후 연구참여자 2인과 자료 수집에 협조해 준 다문화 산부인과 산모교육 전문가에게 이야기 윤곽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고, 그들의 직접 및 간접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면담분석 내용을 연구주제 및 방법의 관련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원자료로 부터 개념과 범주가 추상화되는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였으며, 질문과 토론을 통해 방법론적, 윤리적 및 법적 고려 사항을 확인하며 근거이론

안에서 타당성을 확인해 보았다. 연구자는 분석결과에 대한 적용가능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들려주고 추가로 이메일을 통해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 결과, 연구 결과가 본인들의 경험을 잘 정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사가가능성을 위해, 질적연구로서의 일관성과 관련된 엄격성을 위해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감사 자료를 남기기 위해 자료 수집 또는 분석의 모든 과정을 메모와 기록으로 남기고 파일로 보관하였다. 또한 확인가능성을 위해 본 연구 과정과 결과가 모든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자 문헌 고찰을 대상자의 자료 수집과 주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실시하여 문헌 고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하는 것으로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면담소요시간과 보상, 면담내용의 녹음, 자발적 참여와 동의, 참여거부 시 불이익 없음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 후, 모든 참여자로부터 사전동의서를 작성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전체 연구의 진행과정은 기관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No: SBR-XX-14-381),

결 과

본 연구 결과 36개의 개념을 생성하고, 이를 추상화시켜 16개의 범주를 도출하여 패러다임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의 핵심범주는 '문화통합적인 어머니 되어가기'로 분석되었다(Table 1, Fig. 1). 문화통합적인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은 초기에 문화적으로 위축되었던 참여자가 어머니 되어가면서 문화적 갈등기를 거치며 두 문화적 형태를 조절하는 과정을 지나 문화적 통합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Fig. 1).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어머니 됨의 유형과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Fig. 2).

1.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의 패러다임 모델

본 연구에서 '문화통합적인 어머니 되어가기'라는 핵심범주의 인과적 조건은 '이민자 어머니로서 정상적인 자녀 성장에 대해 걱정함'이며, 중심현상은 '좋은 어머니 되기를 열망함'이었다. 참여자는 '총체적 낯센', '문화 교차로에서의 차별', '한국사

회에서의 성장 욕구'라는 맥락적 조건에서, '위축되기', '견뎌내기', '도전하기', '정착하기'라는 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며, 중재적 조건인 '배우자의 협력', '친정으로부터의 지지', '시댁으로부터의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어머니다움', '양육 고통', '두 문화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과적 조건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자신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이민자 어머니로서 정상적인 자녀 성장에 대해 걱정함'이라고 인과적 조건을 범주화하였다. 이 범주의 해당 개념으로는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아기의 사회적 발달에 지장을 줄까봐 염려하고 차별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아기 사회성 발달을 걱정함'과 '자녀의 사회적 차별에 대해 걱정함'을 도출하였다.

집 밖을 잘 안 나갔던 거 같아요. 다른 애들과 함께 있으면서 놀게 하고 그래야 하는지 아는데 그러지 못해서 염려되기도 해요. 아이들과 놀지 않으면 발달하지 못한다고 들었어요(참여자 1).

2) 중심현상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아이가 될까봐 걱정하면서 참여자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열망하며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애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 '좋은 어머니 되기를 열망함'이라는 중심현상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해당 개념은 '좋은 엄마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애태움'과 '한국에서 차별 없이 키우기를 희망함'으로 나타났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태교도 신경 쓰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예쁜 말 하려고 하고 뭐 진짜 그냥 좋은 엄마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아기가 차별받지 않도록 키우는 것을 원하죠(참여자 6).

3) 맥락적 조건

참여자는 대체로 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한국살이와 결혼생활에 대한 낯센과, 지지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머니 역할을 처음 감당해야하는 생소함에 처해 있었다. 또 모국과 한국 두 나라 문화의 차이와 그와 관련된 한국사회에서 받는 차별을 경험하였다. 그러면서도 참여자는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보

Table 1. Concepts and Categories in Becoming a Mother of Chinese Immigrants in Korea

Concepts	Categories	Paradigm elements
Worry for baby's social development Worry for baby's social discrimination	Worry for baby's development as an immigrant mother	Casual condition
Struggle to be a good mother Wish to raise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Desire to become a good mother	Central phenomenon
Unfamiliarity in new environment Gloom due to lack of knowledge Cultural difference	Overall unfamiliarity	Contextual condition
Discrimination for Chinese Discrimination from the same race Discrimination among multicultural benefits	Discrimination in the intersection of culture	
Desire for economic stability Wish to offer Korean education for children	Desire for development in Korea society	
Care for cultural difference from husband Helping house work and baby care Learn baby care method from mother Various support from own family Daily support from husband's family Different support depend on the sex of baby Support from friends of both countries Collect information via internet Utilize various community welfare	Cooperation of husbands Care from the mother's original family Support from the husband's family Utilizing the community benefit	Intervening condition
Social intimated due to discrimination Feel loneliness due to being intimated Determine staying in Korea due to baby's future Try various child care method Seek for solution to overcome the cultural conflict with own mother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for baby's education Raising a baby to be bilingual Join Korean society with Chinese identity	Intimidated Enduring Challenging Settling	Action/Interactional strategies
Maladaptation in Korean society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aising children due to lack of support Understanding baby care method Becoming dedicated Feeling happiness being a mother Raising baby with cultural integration Developing as a mother based on both cultures	Pain stepping from raising children Motherliness Motherhood based on both cultures	Consequences

다 나은 미래를 살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가 처한 맥락적 조건은 ‘총체적 낯섦’, ‘문화 교차로에서의 차별’, ‘한국사회에서의 성장 욕구’로 도출되었다.

먼저 ‘총체적 낯섦’ 범주의 해당 개념은 이민자로서 첫아이 어머니로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섦’, ‘양육에 대한 무지로 막막함’, ‘문화적 다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교차로에서의 차별’ 범주의 해당 개념은 한국사회에서 중국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대우, 조선족 스스로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한국인으로 부터의 차별대우, 그리고 조선족 부부에게는 제한적인 다문화 혜택으로 인한 차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 ‘동족으로부터의 차별’, ‘다문화 정책 안에서의 차별’로 분석되었다. ‘한국사회에서의 성장 욕구’ 범주의 해당 개념은 과

Fig. 1. Paradigm model.

거 중국과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갈망’과, 한국인과 동일한 자녀 교육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자녀를 위한 한국 교육 제공에 대한 바람’이었다.

처음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좀 차별하는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다른 매너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도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더 나이가 먹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요 지금 힘이 있잖아요. 아기를 위해서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요. 좋은 교육 시키려면요(참여자 7).

4) 중재적 조건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열망할 때, 참여자는 주변의 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주변자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중재적 조건 중 남편으로부터 문화적 차이를 이해받고 지지를 경험하는데 이 해당 개념은 ‘문화적 다름에 대해 배우자의 배려’, ‘양육과 가사에 대한 배우자의 협조’이다.

중국 남편과 달리 한국 남편은 잘 안 도와준다는데 중국 사람들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남편은 퇴근 후 아기 목욕은 혼자

책임지고 해줘서 도움이 되요. 아기랑 놀기도 하고 저녁에는 쉴 수 있어요(참여자 5).

중재적 조건으로 시댁으로부터는 일상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머니가 되어 가는데, 이는 ‘시댁으로부터의 지원’ 범주이며 해당 개념은 ‘시댁의 일상적 지원’, ‘자녀 성별 선호에 따라 다른 시댁 지원’이다. 또한 모국에서 한국에 방문하여 도움을 주는 친정가족으로부터 도움은, 양육 보조와 산모 회복 도움이다. ‘친정으로부터의 지지’라는 중재적 조건 범주의 해당 개념으로 ‘친정엄마의 양육법 전수’, ‘친정식구들의 다양한 지원’이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민자에게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이 범주이고 그 해당 개념은 ‘양국 친구들의 지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 ‘다양한 복지혜택 자원의 활용’이다.

병원진료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시동생이 함께 가줘요. 친정에서 태교에 좋은 음식 가지고 엄마가 왔다가 애기 낳은 뒤에 아기 돌보는 것 가르쳐 주셨어요. 친구들에게 어떻게 애기 키우는 거 물어보니까 애기들은 나중에 다 할 것이고 너무 겁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중국 친구들에게는 인터넷으로 채팅하며 물어보고 중국말로요. 한국 엄마들처럼 산모교실도

다녀봤어요(참여자 5).

5) 상호작용 전략

참여자 5가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한 노력하면서 보이는 행동을 분석하고 범주화하였다. 이것을 상호작용 전략으로 분류하였고, 분석된 범주는 ‘위축되기’, ‘견뎌내기’, ‘도전하기’, ‘정착하기’다. ‘위축되기’의 해당 개념은 이민자로서 경험하는 ‘차별 대우’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됨, ‘위축에 따르는 외로움을 느낌’이다. ‘견뎌내기’의 해당 개념은 사회적 문화적 차별로 인한 갈등을 ‘자녀의 장래를 고려하여 한국 정착을 결심함’으로 드러났고,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위한 ‘도전하기’의 해당 개념은 ‘다양한 양육 방법의 시도’, ‘친정엄마와의 문화갈등 해소 모색’, ‘자녀 교육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함’이다. 일련의 적응 과정을 통해 ‘정착하기’에 이른 어머니는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진 아이로 양육함’,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사회에 합류함’을 통해 한국에서 두 문화를 통합하는 어머니가 되어간다.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아무렇지 않아요. 좋아요. 외국인이라서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국 엄마들과도 어울려요. 부모교육 다닐 때는 항상 바빴어요. 중국인이라서 못 할 것도 없고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참여자 8).

6) 결과

이러한 어머니 되어가는 현상의 결과는 일반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성과 이주여성으로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특성은 ‘어머니다움’으로, 모국 문화를 표출한 특징은 ‘두 문화 어머니’로, 지지기반이 부족하다는 조건은 ‘양육 고통’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다움’의 해당 개념은 ‘양육 방식을 터득함’, ‘헌신적으로 되어감’, ‘엄마 되는 기쁨을 느낌’으로 표현되었다. 본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범주인 ‘두 문화의 어머니’ 범주의 해당 개념은 ‘문화통합적으로 양육함’과 ‘두 문화 어머니로 성장함’으로 모국과 한국의 문화적 특징을 동시에 수용하고 통합하는 어머니로서의 적응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양육 고통’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함’, ‘지지부족으로 인해 양육을 어려워 함’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민자 어머니로서 한국에서 어머니 되기 어려운 현상을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돈벌이로 한국에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가보면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도 한국만큼 좋아질 거예요. 중국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애기에게 알려주고 한국 아이들이 못 가진 것 줄 생각을 하면 남편에게도 큰소

리해요. 한국에서 잘 배우고 중국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아기는 좋을 거 같아요(참여자 9).

2.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 유형과 상황모형

이상의 패러다임 모델과 과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유형, ‘위축형’, ‘갈등형’, ‘통합형’의 어머니 됨을 확인하였고, 그들의 어머니 됨을 포괄적으로 도식화한 상황모형을 제시하였다(Fig. 2). 이 세 가지 어머니 됨의 유형은 한 유형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참여자의 맥락, 중재, 전략의 변화로 인해 통합형 어머니로 성장, 발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위축형’은 한국인들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한국인을 대하기에 심리, 사회적 위축을 느끼고 실제로 한국인과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양국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로인한 차별적 대우를 심하게 받았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도 차별받고 있었으며, 한국인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성장 욕구가 다른 참여자에 비하여 약하게 드러난 경우에 해당되었다. 또 한국사회를 낯설게 느끼고 양육에 대해서도 직간접 경험이 전혀 없어 생소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에 속한 참여자의 행동은 위축되어 있었으며, 두 문화를 통합적으로 양육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워 결국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번민한다고 했다.

‘갈등형’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을 약하게 경험하고,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한국에서 어머니 되어가는 것이 총체적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참여자에게 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의 참여자는 어머니 되는 과정에서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지만 자녀를 잘 키워내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견뎌내고자 분투하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통합형’은 두 문화의 차이를 차별로 경험하지 않고, 선진 한국사회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문화적 이해가 높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능력이 뛰어나 이주나 어머니 됨에 대한 낯설음을 대체적으로 적게 느끼는 경우이다. 어머니 되어가면서 경험하는 양육방식 등의 문화적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거리낌 없이 한국 어머니 역할에 도전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수용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양육방식을 수행하였다. 이 유형은 자녀 성장을 위해 두 문화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어머니로 정착하였다.

Fig. 2. Situational model.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이주한 중국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연구결과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의 핵심범주는 ‘문화통합적인 어머니 되어가기’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됨을 참여자가 부모 세대를 통해 보고 배운 기억을 탐색하여 모방하는 동시에 자신이 한국 문화에서 새롭게 취득한 문화 정보를 수용하고 조절하여 통합하는 과정으로 설명한 결과는, Berry (1997)의 문화 적응 이론에서 ‘문화 통합’을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Meleis 등(2000)이 이민과 출산을 동시에 경험하는 이민자 여성의 정체성을 두 문화에 근간한 ‘새로운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설명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응의 다양한 유형 중 ‘통합’은 가장 건강한 방식의 적응유형으로 설명되므로 (Berry, 1997),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의 현상이 문화통합적 어머니 됨으로 분석된 결과는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한국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와는 달리 Kim 등(2009)은 이민여성이 모국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절충한 타협안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고 했고, Kim (2012)은 중국 어머니들이 문화적 통합 보다는 변용을 주요 어머니 됨의 현상으로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Kim 등(2012)은 결혼이주 어머니들은 한국식 어머니 되기를 강요받고 있다고 했고, Kang & Jang (2009)은 결혼이민여성이 어머니로서 자신을 ‘경계인’으로 보거나 혹은 ‘주변화’로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했다. 또 Kim 등(2014)은 한국의 가부장적 제도 속의 ‘한국적 어머니’로, Kim (2013)은 ‘한국 어머니로 거듭나기’로 이주자 여성의 적응 과정을 보고했다. Kim (2008)의 연구에서 한국 결혼이민여성은 Berry (1997)의 문화 적응 네 가지 유형, 즉, 통합, 동화, 분이, 주변화 중 통합(integration)을 가장 선호한다고 보고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이 문화통합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은, 선행연구에 비해 모국의 문화적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의 상당히 진보된 결과임과 동시에 의의가 큰 결과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에서 드러난 낮값, 차별, 성장욕구가 참여자간에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는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부부 중심으로의 가족관계 변화가 참여자의 중재적 조건을 강화하여 문화통합적인 어머니로 되어갈 수 있도록 촉진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참여자의 특징에 따라 다른 전략의 선택은 참여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도록 하여 문화통합적 어머니 됨을 이루게 하

였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참여자의 이민 형태, 사회경제적 차이, 출신국별 어머니 됨의 비교 연구를 통해 문화통합적인 어머니 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의 상황모형에서 도출된 어머니 됨의 세 유형은 위축형, 갈등형, 통합형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어머니 됨의 유형은 하나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며, 현재 분류된 유형에서 조건범주가 개선되면 발전적으로 성장해 갈 수도 있었고, 반대로 조건범주가 악화되면 후퇴하는 유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체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사회에서 적응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성장하며 통합형 어머니로 성장해 가는 패턴을 보였다. 특별히 분석된 세 가지 유형의 차이는 맥락적 조건 중 ‘한국사회에서의 성장 욕구’와 상호작용 전략인 ‘도전하기’와 ‘정착하기’가 가장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2). 유형 중 통합형은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상호작용 전략도 도전적이며 한국사회 내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참여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탐색하고 정보를 취득하며 새로운 양육방식을 시도하였다. 한국 문화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이루어가게 하는 동력은 한국사회 내에서의 성장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축형과 갈등형이 통합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및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다문화 인구를 한국 사회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주 어머니가 한국에서 차별과 위축을 경험하지 않고 문화통합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특별히 위축형 어머니에게는 차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인 위축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안정감 있는 한국인 간호제공자와 긍정적 경험을 하게하며, 지속적이고 공감적인 간호와 멘토링을 제공하여 스스로 문화통합적인 어머니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고 실제로 사회적 지지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등형 어머니는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사회에서 또래 맘들과 자연스럽게 지지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형 어머니와의 또래 맘 모임을 조성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모든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

니 됨의 현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양국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통합적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에서의 어머니 됨의 현상과는 차이가 있으며, 특별히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됨 현상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였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여성이 문화통합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의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에서 의 핵심범주는 ‘문화통합적인 어머니 되어가기’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이주 중국여성의 어머니 되어가는 유형은 참여자의 사회심리적 맥락과 중재적 조건의 정도, 상호작용 전략에 따라 위축형, 갈등형, 통합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이주 중국인 어머니 됨 실제이론을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별 어머니 되어가는 과정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고 건강한 어머니 됨을 이루도록 간호 중재를 계획할 때 유형별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어머니 됨 적응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의료인들의 다문화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사 혹은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역량증진 교육을 실시하기를 제언하며, 특별히 민족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가 수도권 지역의 중국어 소통이 가능한 중국 출신 어머니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문화적 맥락의 심도 깊은 탐색을 위하여 놓여온 지역의 중국이민 여성 혹은 다른 국적 출신의 다문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 됨의 과정과 경험에 대한 탐색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감사의 글

본 박사학위 논문의 완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아주대학교 현명선 교수님, 송미숙 교수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선경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박형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진술하여 주시고 연구 질문에 기꺼이 응해주신 연구참여자 중국인 어머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Berry JW.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 Psychol* 1997;46(1):5-68.
- Bornstein MH, Bohr 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Parenting. *Encyclopedia 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2011.
- Corbin J. & Strauss, A.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3th ed. London: Sage; 2008. p. 1-358.
- Coyne IT. Sampling in qualitative research. Purposeful and theoretical sampling; merging or clear boundaries? *J Adv Nurs* 1997;26:623-30.
- Guba EG, Lincoln YS. Effective evaluation :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Francisco, CA.: Jossey-Bass; 1992. p. 22-98.
- Kang MY, Jang IJ. Mothering Experiences of Filipino Immigration Women in Korea : Through the Cultural Politics of Identity. *J Contemp Soc Cult* 2009;28:73-144.
- Kim DH. A study of effect on parenting efficacy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culturation.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8. p. 1-158.
- Kim DH, Kim SY, Shin HJ. The study on impact of spousal support and social support on foreign Wives's parenting stress in rural areas. *Fam Cult* 2007;19(3):53-78.
- Kim JH, Oh JA, Yoon CM, Lee JH. Married Immigrant Women's Child-Rearing Experiences Including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Efficacy. *Korean Parent-Child Health J* 2009;12(1):46-60.
- Kim KS, Kim MK. Maternal acculturation process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014; 44(1):1-12.
- Kim MY. Becoming a mother of married immigrant women. [dissertation]. Dague: Keimyung University; 2013. p. 1-85.
- Kim SH. Pregnancy and Childbirth Experiences of Chinese Marriage Immigrant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2;16(2):170-85.
-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2;18(2): 85-97.
- Meleis AI, Sawyer LM, Im EO, Hilfinger Messias DK, Schumacher K. Experiencing transitions: an emerging middle-range theory. *ANS Adv Nurs Sci* 2000;23(1):12-28.
- Mercer TR.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 Nurs Scholarsh* 2004;36:226-33.
-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Foreigners Statistics based on Local Governments. [Internet] Seoul: Author; 2015 [cited 2016 July 20]. Available from: http://www.mogaha.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2492.
- Park SE, Rhee CW.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Immigrant Women's Parenting Efficac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Korean J Fam Soc Work* 2012;37 (9):359-84.
- Song JE, Park SM, Roh EH. The Postpartum Experiences and Needs among the First Time Mother of Chinese Immigrant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6;22(1):48-60.
- Statistics Korea. 2014 Multicultural Population. [Internet] Seoul: Author; 2015 [cited 2016 July 20].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1/index.board?bmode=read&aSeq=349827.